

“시멘트 가루에 속수무책 고통”

제주시 도평동 주민들 레미콘 공장 피해 주장 “감귤 썩어 상품성 떨어지고 작업할 때마다 기침” 공장측 “분진 발생 억제 노력… 피해 보상할 것”

제주시 도평동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인근 레미콘 공장에서 날아온 시멘트 가루 등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5일 현장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바람이 부는 날이면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과수원에서 작업을 할 때마다 기침이 난다”며 “며칠 전 바람이 강하게 불던 날에도 여지없이 시멘트 가루가 날아왔는데 곧 태풍이라도 오면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날아온 시멘트 가루가 과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감귤을 수확하면 금방 썩어버린다”며 “선과장에 가져가도 제 값을 받기 힘들어 피해가 막심하다”고 덧붙였다.

B씨의 과수원은 레미콘 공장 담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다. 높은 옹벽 너머로 공장은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고 가득 쌓여있는 자재 더미 위로 검은색 덮개가 보였으며, 분진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리고 있었다.

B씨는 밭 이곳저곳에서 날아온 시멘트 가루의 흔적을 확인시켜줬

다. 감귤 나무 아래쪽은 물론이고 배수로를 따라 회백색의 가루가 쌓여 있었다.

레미콘 공장과 인접한 또 다른 과수원 주인 C씨는 “몇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해도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없고 달라지는 게 없어 답답하다”며 “굴 농사를 지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과수원을 처분하고 싶어도 공장으로 인해 쉽지가 않아 재산상의 침해가 크다”고 말했다.

레미콘 공장 인근 주민들은 ‘피해 지주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피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25명 정도가 참여 의



감귤나무 아래 쌓여있는 시멘트 가루(왼쪽)와 옹벽 밑 배수로에 가득찬 시멘트 가루. 김도영기자

사를 전했으며 협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농작물 피해와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찾고 업체 측의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레미콘 공장 관계자는 “인근 농민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주변 과수원 피해 예방을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방진 덮개 등을 사용해 분진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피해가 확인된다면 피해 보상에 나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지난 4일에도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돼 있으며 4일 점검에서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방진 덮개 사용과 살수 작업 등 분진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업체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영기자



만개한 황근과 팔랑나비 5일 제주시 조천리 인근 도로변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황근이 만개하자 팔랑나비 한마리가 찾아와 꿀을 따먹고 있다. 김희만기자

폭염에 고물 옮기던 노인에 전해진 情

“전동휠체어에 고물 실은 노인 사고날까 걱정” 신고 경찰관 현장 출동해 도움 인근 주민은 1t 트럭으로 고물 자원업체까지 옮겨줘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고창현·이지은 경사가 고물을 신고 위험하게 도로를 지나던 80대 노인을 돕고 있다. 독자 제공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주말, 도로에서 위험하게 고물을 주워 옮기던 80대 노인이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가한 사연이 알려지며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지난 3일 낮 12시17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에 고물을 싣고 가는 어르신이 도로에 고물이 떨어지며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고창현 경사와 이지은 경사는 현장으로 출동해 조치에 나섰다.

현장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A

(80)씨는 전동 휠체어 가득 고물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다. 차량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무더위에 지친 A씨의 건강도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다.

고창현 경사는 A씨에게 날씨가 무더우니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A씨는 고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노형동의 한 자원 업체가

지 폭 가야 한다고 말했고, 고물의 양이 많아 경찰차로 옮기기도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지인이 이 동네에 사는데 1t 트럭이 있다”며 “트럭을 이용해 A씨의 고물을 옮겨보자”고 제안했다.

얼마 후 다른 시민이 몰고 온 트럭에 A씨의 고물을 실어 안전하게 자원업체까지 이송할 수 있었다.

고창현 경사는 “지난 2월에도 A씨의 전동 휠체어가 방전돼 집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다”며 “이날도 현장에 도착해보니 그때 그 분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 경사는 이어 “폭염 속에서 고생하시는 어르신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고 경찰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어려우려 난감한 상황에서 트럭을 흔쾌히 내어주신 시민 덕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도영기자

보행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제주시 1억5000만원 투입 도평초 주변 등 4개소 시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시스템이 마련된다. 제주시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횡단보도, 교차로

등 교통사고 다발 구역 4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광양사거리, 인제사거리(2개소), 도평초 주변이다.

이 사업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은 보행자와 접근 차량을 두 개의 카메라와 센서로 각각 인식, 전광판과 스피커 등 안내시설물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접근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주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전선희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독자제보 750-2232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 창립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이하 세제모)이 지난 4일 창립총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알리고 진실규명을 위한 실천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세제모는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제주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주축이 돼 세월호 참사 관련 사업과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제모는 진실규명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교훈인 안전사회 건설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영기자

축 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 영 훈
(사)제주특별자치도 위생단체연합회 회원일동

이 정 환
한국이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양 영 단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문 성 규
한국유형·단련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연합회장

김 대 원
한국추출가공식품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홍 성 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이 희 영
한국이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한 현 정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장 미 숙
한국유형·단련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배 지 현
대한네일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